

DBR

Dong-A
Business
Review

www.dongabi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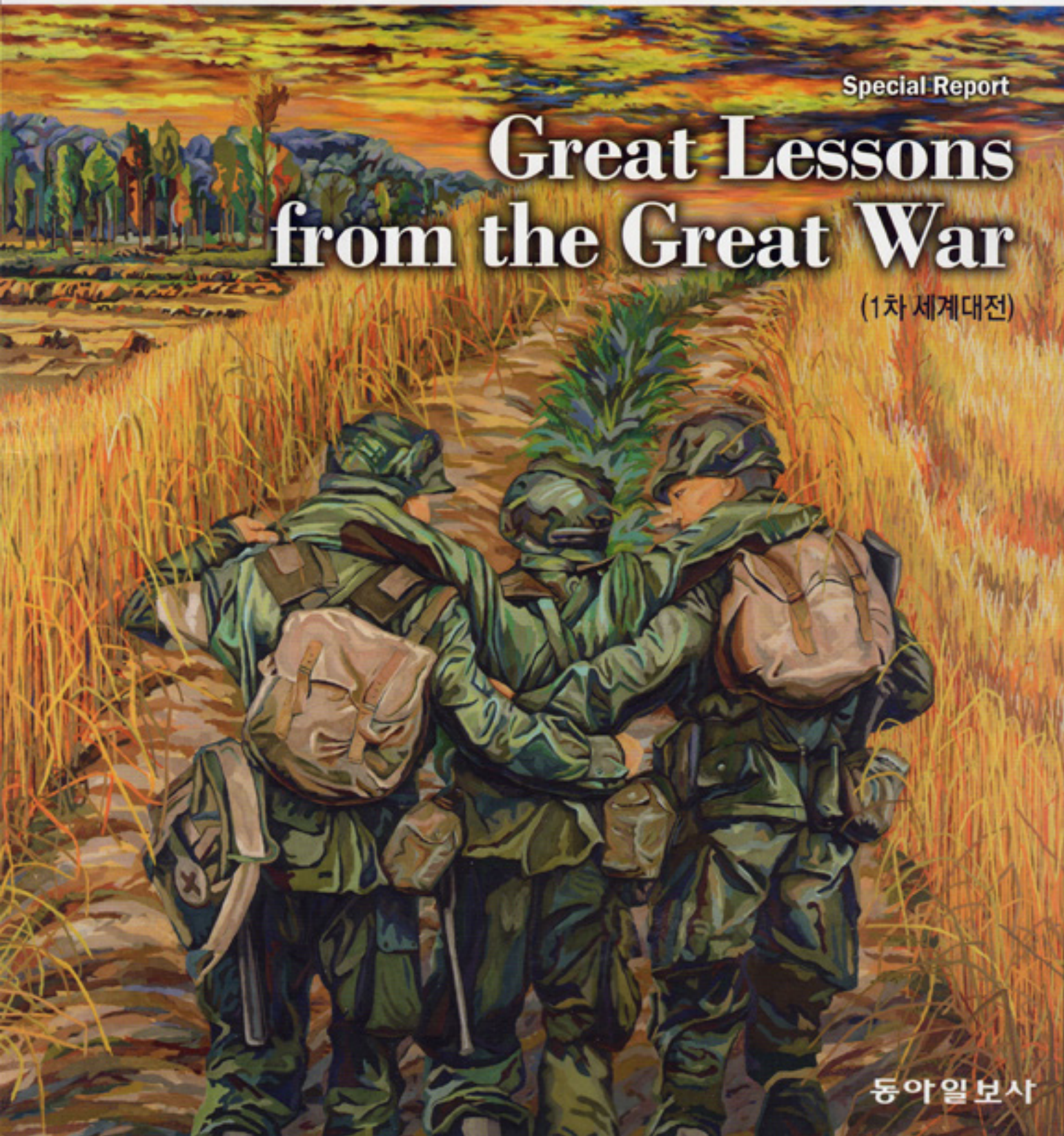


12,000원

Special Report

Great Lessons from the Great War

(1차 세계대전)



동아일보사



세오(SEO) - Without Words
캔버스 위에 종이 콜라주/아크릴, 250 x 250cm, 2009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남아 걸어가는 사람들. 황금색 농로의 끝에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함께 가야 한다. 어깨를 걸고 가는 그 자체가 희망이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 전쟁과 파괴 뒤에 살아남은 자들과 울고 반성하고 함께 간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인간이 차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살육전이 시작됐다. 1차 대전은 참극을 낳았고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지만 기술 발전과 성장, 평등의 확대라는 부산물도 양산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DBR은 책 호 표지에 스페셜 리포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예술 작품을 실고 있습니다. 한국 예술계를 이끌고 있는 작가들의 독특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감영에 새로운 영감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Special Report

Great Lessons from the Great War

100년 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인류로부터 많은 것을 앗아갔다. 충격이 너무 컸기에 영국인들은 이 전쟁을 'Great War'라고 부를 정도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인간들로 인해 벌어진 참극이었다. 하지만 인류는 또 이 비극 앞에서 성찰했고, 교훈을 얻고 세상을 진보시켰다. 이번 호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기업의 전략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등을 소개한다. 전쟁 후 변화한 소비성향이 기업들을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도 추적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히스토리(기업 역사) 석학 크리스토퍼 맥케나 옥스퍼드대 사이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현재 한국 기업인들에게 전하는 1차 대전의 교훈도 실는다.

- 26 '대전력'의 탄생
철도로 수송하고 전투기로 싸우고... 확장된 전쟁, 대전력·총력전을 낳다
- 34 승 전투의 교훈
기술맹신의 시대, 현실 외면한 전술, 탁상 위 매뉴얼이 병사를 죽였다
- 43 Interview: 크리스토퍼 맥케나 옥스퍼드대 사이드 경영대학원 교수
환상적 기술에 대량생산 실현... 전쟁의 과잉연구가 전후 기업의 젖줄
- 48 소비성향의 변화
귀족의 시대에서 대중의 시대로... 유행과 디자인이 탄생했다
- 54 대공황 원인과 시사점
미국의 번영과 히스테리적 소비, 마침내 거품과 대공황을 낳다
- 66 1차 세계대전과 국가브랜드
구세주 미국, 대동아공영 일본, 억척같은 중국... 전쟁의 끝, 국가 브랜드를 낳다



구독 문의 | 02-2020-0561, 0595
광고 문의 | 02-2020-0574, 0527
배송 문의 | 070-4040-6764